

LGD, 아이패드 호조로 매출 급증

2/4분기 태블릿만 6억1000만달러 ... 아이패드 이어 아이폰 디스플레이도

LG디스플레이의 태블릿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애플(Apple)의 아이패드에 대한 납품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LG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공급도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4분기 LG디스플레이의 태블릿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은 6억1000만달러로 1/4분기 2억7000만달러에 비해 126% 늘어났다.

LG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액에서 태블릿용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10%로 높아졌다. LG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액은 1/4분기에 54억8000만달러, 2/4분기에 61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아이서플라이는 “LG디스플레이는 아마존(Amazon),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 등 태블릿 생산기업들에게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왔고 2/4분기에는 애플의 새 아이패드용 패널 출하를 시작했다”면서 “태블릿 패널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도 “3/4분기에는 태블릿 패널 판매가 40-50% 신장할 것”이라고 밝혀 3/4분기에는 LG디스플레이가 태블릿 패널 시장에서만 8억5000만-9억2000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서플라이는 LG디스플레이가 현재 LCD(Liquid Crystal Display) 공장 중 일부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적합한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LCD 라인으로 전환해 아이폰용 패널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6>